

공 산 주 의 의 비 판

1972. 10.

전남필

차 례

머 리 말	1
1. 공산주의 철학	3
2. 공산주의의 정치체제	17
3. 공산주의의 경제질서	29
4. 공산주의와 사회질서	41

머 리 말

1848년 2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차나의 요피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요피가.」라고 썼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기의 오늘날엔 이 공산주의의 요피는 유럽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아시아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이 한반도에 까지 민족적 불행과 비극의 씨를 뿌리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요피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대립과 반목과 음모와 분열·숙청 등의 무서운 재앙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공산주의는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주어진다」는 이상적 사회체제, 착취도 계급도 국가도 없는 「^{자신 주권} 자유의 황국」을 약속하였으며, 그때문에 이는 「혁명과 해방의 복음」이요 「치국의 교의」인양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선전이요 신화이며, 사실은 공산주의란 「과피와 억압의 주문」이요 「압제의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본질과 실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자칫 여기에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거나 때로는 매료당하기도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이론이 갖는 특수성과 그 전략·전술의 교묘성때문이라 하겠다. 공산주의이론은 「진리·애매·허망의 혼합물」이며, 또 그 전략·전술은 천사와 악마의 두얼굴을 가진 야누스

적인 것으로 나타나기에 이의 본질과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이와같은 허구성·기만성·독단성·확실성을 옹기알아채림으로써 공산주의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적 제가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사회를 수호해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상이한 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시대」에서 우리 민주체제의 우위성을 신장, 발전시켜가야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 및 실천의 바른 인식·파악을 위해 이를 1. 공산주의철학, 2. 공산주의의 정치체제, 3. 공산주의의 경제질서, 4. 공산주의와 사회생활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공산주의철학

이것도 (가) 공산주의철학은 무신론이다.

(나) 공산주의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다) 공산주의는 과학적이라고 한다. (라) 공산주의는 전체를 중요시한다. (마) 공산주의는 신환종교이다. 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가) 공산주의철학은 무신론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며 따라서 무신론이다. 이 기본원리위에서 종교와 신을 단호히 거부한다.

공산주의가 모든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① 종교의 허구성·허위성과 ② 종교의 해독성·반혁명성을 내세운다. ① 종교의 허구성·허위성에 대해 살펴보면 18세기 백과사전편찬자들도 그러했으나, 특히 독일의 헤겔좌파인 포이엘바하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을 인간두뇌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와 인간을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신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이념」에 관한 헤겔의 객관적 관념론철학도 아울러 비판하였다.

이 포이엘바하의 이론은 신을 창조하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하여 유물론적으로 옳게 해석하지 못했기에 유물론을 철저히 관찰할 수 없었으며 종교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전투적 무신론은 더욱 철두철미하게 종교와 신을 반대하였다. 종교와 신은 과학과는 아무런

관견성

공통성도 없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종교의 해독성·반혁명을 내세우면서 「종교란 일종의 정신적으로 악한 술이며,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인민이 중독되고 매혹되며, 마취되고 약화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피착취계급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혁명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착취자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가릴 값싼 위안물을 제공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와같이 종교를 미신이고 마취제요 아편이라고 비난·공격하고는 신과 종교를 추방한 그 텅빈자리에 마르크스와 변증법적 유물론을 들어앉히려 하는 것이다. 신이나 종교 대신에 마르크스·엥겔스, 레닌과 유물론을 숭배·신앙하며 그 앞에 ~~배~~배하려고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서 가장 치졸하고 독선에 찬 것이 다름 아닌 이 종교이론이다.

그들은 첫째 종교의 「허위성」을 주장하나 지금껏 종교의 「허위성」과 「신의 부재」와 나아가 유물론의 진리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신과 종교에 대한 거부와 부정은 다만 그들의 신념의 표현에 불과하며, 그것은 공산주의의 ~~공양~~ 교리에 유리하도록 다른 일체의 신념을 거부·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둘째로, 종교의 「해독성」과 「반혁명성」을 들고 있으나 기독교나 불교등이 빈자와 약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선과 구제 사업을 해왔으며, 인류문화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는 그들도 결코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반혁명적」이라고 하나 이 종교가 사실은 혁명세력까지로 된 적이 얼마든지 있다. 1956년 폴란드에서 반소·자유화운동을 일으켰던 포즈난의 노동자들은 성가를 부르면서 경찰서로 행진해갔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와 신부들이 사회의 불조리와 대결하고 집권세력에 항거하면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판이다. 또 가까운 예로 월남의 앙·광·사원을 중심한 불교도들이 자본가나 지배계급의 앞잡이가 아니라 오히려 반정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쯤은 공산주의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국가들은 반종교·반교회정책을 강력히 추진해가면서도 종교탄압이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종교말살정책과 아울러 종교회유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탄압에 의해 종교세력을 지하로 몰아넣기 보다는 회유가능한 종교인이나 종교세력은 양성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동정과약에 유리하다.

둘째, 협조적·어용적 종교인으로 하여금 공산당에 협력케하여 정치선전에 이용한다. 소련에서 그리스정교가, 북한에 천도교청우당이나 기독교동맹등의 들러리 정당, 위성단체를 두고 있는 것도 이때 문이다. 세계 신교의 자유를 헌법등에 명기함으로써 마치 공산주

의사회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양 대외적으로 가장. 기만하고
대내적으로 종교인들의 반항을 무마, 거세함을 노려서이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신을 부정하고 「물질적 생산력」을 과장,
선전하더라도 인간에게 생.노.병. 및 사랑에 따른 고민과 죽음의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종교는 결코 부정될 수도. 말살될 수
도 없다.

(4) 공산주의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첫 강령적 문헌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
산당선언」은 제 1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
민, 영주와 농노, 동적조합의 십장과 직인, 요컨대 억압자와 피억압자
는 항상 대립하여 때로는 은연한 때로는 공공연한 투쟁을 계속하였
다. 그리하여 이 투쟁은 언제나 사회전체의 혁명적 개조로 끝나든
가 아니면 상호투쟁하는 계급의 공동적 몰락으로 끝났다」고 하였다.

봉건사회의 몰락에서 생겨난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은 계급대립은 단
순화하였던 것이며, 여기서는 적대하는 2대계급, 즉 생산수단을 소
유하는 부르조아지와 자기의 노동력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않는 프롤
레타리아트로 분열·대립·투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양대계급
으로 양극화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중산계급은 몰락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 가난해진다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은 최후의 계급투쟁」으로 되며, 따라서
「부르조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투쟁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계급은 계급투쟁이 있던 낡은 부르조아사회 대신에 착취도 억압도 계급지배도 없는 「자유로운 결합」으로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의 이 계급투쟁론은 맞지 않음은 물론 많은 비극을 낳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계급투쟁론의 부당성·오류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계급협조의 측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로포트킨은 그의 「상호부조」란 책속에서 조류들의 상호부조하는 생활을 묘사한 바 있으나 새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도 투쟁과 함께 서로 협조하고 상호부조하는 면이 있음은 공산주의자들도 부인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사협조가 바로 이와같은 사실을 옹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각각 대표를 선출하여 경영에 관한 협의를 행하는 제도적 기관으로서의 경영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더 구체화한 노임공동결정이 행해지면서 계급간의 협조와 공존·공영을 꾀하고 있다.

11)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르조아지는 독과점기업화에 의해 거대자본가만 남게된다고 했으나 오늘날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실시로 근로대중의 생활은 윤택해졌고 유복해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독과점규제로 인해 거대자본가만 남게 된다는 그 이론도 틀리게 되었다.

ii)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몰락한다는 공산주의 이론도, 몰락은 커녕 더욱 건실화하고 신장패가는 중산계급의 존재로 인해 빛나가고 말았다.

계급은 양대계급으로 양분되고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분화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이다.

iv) 「부르조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했으나 자본주의국가에서 부르조아지는 몰락하지도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도 못했다. 또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투쟁에 승리함으로써 착취도 억압도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했으나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생활상이 과연 어떤가를 알면 답은 자명하다.

형태와 방식만 달라졌을 뿐 착취와 억압과 강제는 여전히 오히려 더욱 심한 일면이 있다.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사로 보는 공산주의는 사랑과 평화와 우애를 거부하고 증오와 적개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 공산주의는 과학적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로버트·오웬, 샤를르·푸리에, 쌍·시몬 등의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자기들것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다. 즉 역사의 유물론적 이해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전개한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자칭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과학적이고, 과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들 주장은 가장 부당하고 왜곡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첫째 이는 경험에 입각하여야 하고, 둘째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유로이 비판될 수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수정, 보완되거나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경험에 입각하지 않았으며 선형적인 독단론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하게 짜여져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애매함과 모호함이 뒤섞여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이란 일체 허용되지 않고 불가오류성·영원불변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론이 시공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정당하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 안되고, 어떤 비판에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무런 노력도 시도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대뜸 신은 없다는 가정위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리고는 종교는 거짓이며 유해한 것이다라고 단정한다. 논리의 비약도 이단저만이 아니다. 과학의 이름밑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비과학적인 이론이요 방법론이라 하겠다.

「자본주의사회의 붕괴 필연론」이나 「공산주의사회의 필연적 도래론」 등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과학이 아니라 예언이며 신화이다.

그러기에 이런 간절한 희망과 기대와 목적의식에서 생겨난 예언적 이론이나 주장이 들어맞지 않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있었으면 하는 상태나 이상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는 법이 없다. 기껏해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꼭 그렇게 되고야 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 철학은 한번도 시험되거나 입증된 적이 없이 다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저서의 권위로서 용납된 선형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산주의는 현실부정, 기존질서의 변혁에 대한 정열과 열광,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과 환상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오히려 일종의 도참사상에 가깝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 이론과 실천에 따르는 많은 거짓과 과오를 시정함이 없이 계속 이를 선전하고 전파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과학적인 이론이요, 교리라고 떠드는 그들의 주장이 허위중에서도 가장 큰 허위로 되고 말 것이다.

공산주의는 결코 과학적이 아니라 그 추종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믿기를 강요하는 독단론이며, 따라서 이는 하나의 현대판 신앙이라 하겠다.

(라) 공산주의는 전체를 중요시한다.

공산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부분은 전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

으며, 그와의 관련속에서 변화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에컨대 매개나라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주권을 잡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체의 주체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 동맹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공산주의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물을 연관된 전체의 모습에서 인식·파악해야 하고, 또 개체와 부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전체의 통일성이 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과 개체는 참관되거나 희생되어도 좋다는 사고와 입장은 잘못일뿐 아니라 위험천만하다.

부분이나 개체가 없으면 전체가 있을 수 없고 전체만을 중시하면 부분이나 개체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의 변화발전이라는 것도 개체나 부분의 변화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1) 민주주의적 사고와 배치된다. 전체의 우선, 전체의 우위앞에 자칫하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은 무시당하고 개인의 존엄성이 유린당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각인의 자유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하는데 주안목을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이 전체라는 이름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11) 전체의 중요시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

억압하게 된다. 공산주의 건설이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라는 이름 밑에 국민은 기본적 자유를 제약받거나 박탈당하며 집단화와 강제노동을 강요 당한다. 영광스러운 소비에트를 위해서, 또 전체 인민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것을 요구당하며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투쟁할 것을 강권당한다. 당을 위해서, 전체인민을 위해서 개인적·가정적 평화쯤은 자진 희생해야 하고, 또 자기의 아버지와 형과 친구를 반혁명분자·간첩으로 밀고·고발하는 것이 공민의 의무로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iii) 전체의 중요시는 필연적으로 독재와 전체주의에로의 길을 열게 된다.

전체를 강조한 결과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안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통하게 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사회와 국가가 집단농장이나 인민공사로 조직되거나 병영으로 화하게 된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전체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선전하면서도 사실은 전체를 위하지 않고 극소수의 부분을 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줌밖에 안되는」 부르조아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혁명을 수행했다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밀로반. 질라스가 그의 「새로운 계급」에서 예리하게 분석·폭로하고 있듯이 공산주의사회에는 새로운 계급, 공산귀족계급이 생겨나고 있다. 당과 정부의 고급당료와 관료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소수의 새로운 지배집단은 그들이 봉사해야 할 절대 다수의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성불가침한 절대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개인이 아니라 전체, 즉 공산주의사회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산주의는 스스로의 이론과 주장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마) 공산주의는 신판종교이다.

공산주의는 과학적 이론이 아님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며, 오늘날엔 이 공산주의가 종교적인 신앙처럼 되고 있다.

모든 주의와 사상은 (물론 공산주의도 포함된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신성한것도 절대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유한적인 인간에 의하여 서술·주장된 이론과 학설이, 그것도 노동자계급의 혁명지침서나 강령으로 쓰여진 감이 있는 이론이 때와 곳에 아랑곳 없이 보편타당성을 갖는 절대적 진리일 수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공산주의의 불가오류적 신화가 신봉되고,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마치 인류구원의 복음서나 성전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제 이 공산주의는 현세적 종교요, 공산주의국가의 국정이념올로기로 되고 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은 교조처럼 그들에 의해 숭앙·숭배되고 있는 형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발전적 해석」이니 창조적 적용」이니 하고 떠드는 그들이 급격히 변화발전해가고 있는 「테크놀로지시대」, 우주 과학시대에 이미 낡아버린, 그리고 비과학적인 이론과 주의를 갖고

만병통치의 처방인양,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려하니 될 까닭이 없다.

「공산주의에는 허다한 과장·편파·독단·모순이 감추어져 있다」
라든가, 「공산주의는 짜리짜리를 거꾸로 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
듯이 공산주의는 획일주의적, 전체주의적 성격과 요소를 강하게 지
닌 모순과 허망에 찬 하나의 독단론임에 틀림없다.

공산주의는 이단을 저주·증오하고 시기·질투하는 편협한 감정과
그리고 종교적 열광으로 충만되어 있다.

주관적 감정이 객관적 타당성을 떠올수 없고, 종교적 정열과
열광이 과학적 정당성과 진리에 배치된다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는 물질적 생산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이 물질적
생산력이 인류를 몰아서 기정의 세계계획을 수행시킨다는 역사형이
상학에 떨어지고 말며, 이 점에서 헤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붕괴와
공산주의사회실현의 필연성은 곧 「천년왕국」의 신앙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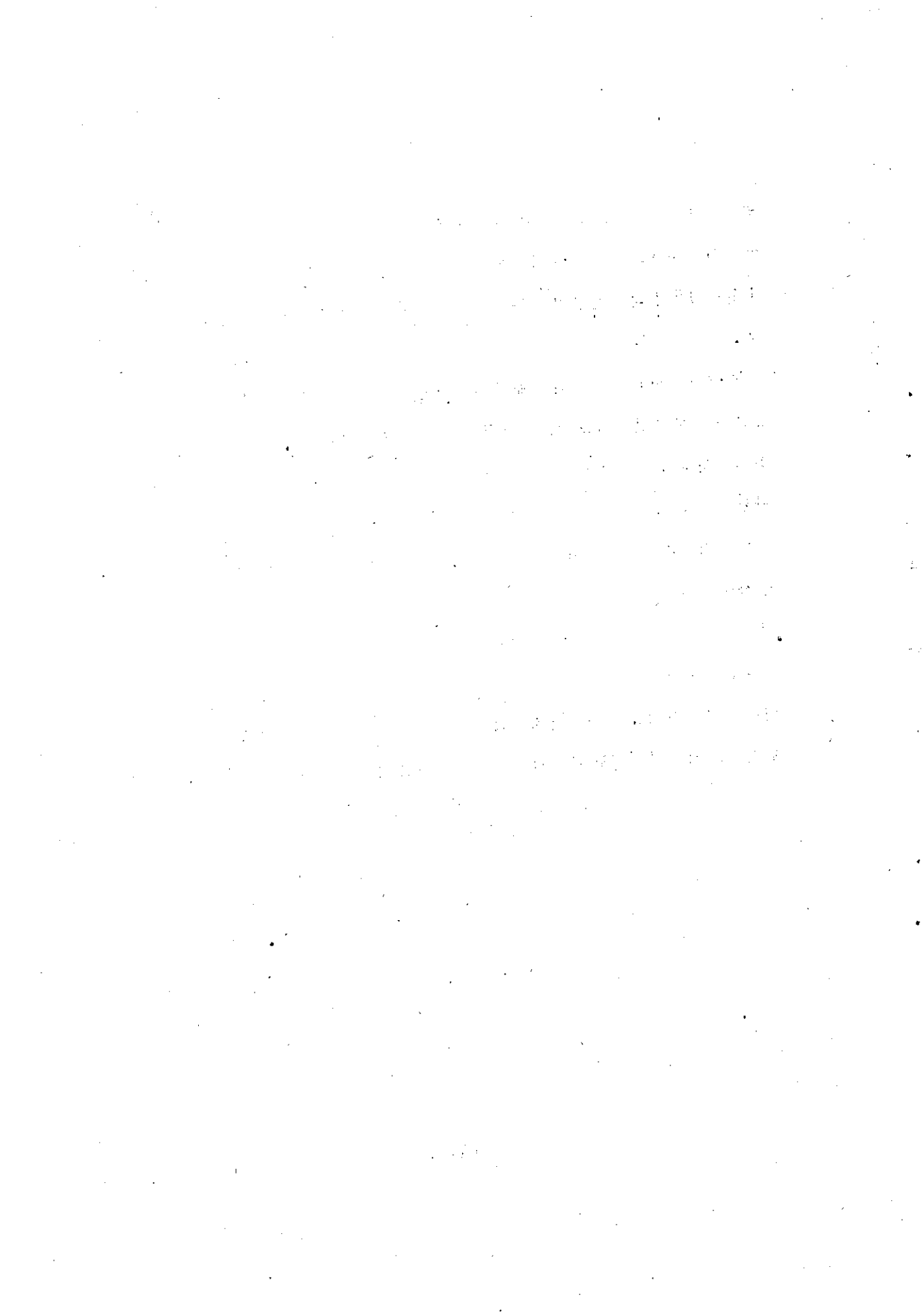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 천년왕국의 신앙이 요한복음 27장에 보
이는 세계의 종말에 앞선 지상에 있어서의 예수와 기독교신자와의
천년간의 지배와 같은 것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시공산주의의 붕괴에 의하여 한번 잃어버린 낙원이, 인
류의 고난에 찬 장구한 세월 뒤에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투쟁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실현되어지는 사유재산제의 해소에 의하여 회복
되는듯이 주장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에 불구하고 인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인도되어 계급도 계급투쟁도 폭력도 없고 하나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태로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하는데는 「천년왕국」의 신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T·G·마사리코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진보에도 불구하고 사적 발전은 그 출발점에 복귀하게 된다. 그것은 곧 구약전서의 견해이다. 마르크스는 시원의 낙원을 믿고 또 장래의 낙원도 믿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시대 전체는 다만 하나의 막간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나 그러나 다시 그곳에 복귀하여 구제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비과학적 천년왕국의 신앙이며 그를 믿는자에게 맹종과 예배를 강요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 폭력과 숙청으로 위협하는 모순과 허당과 편견과 적의에 찬 사교의 하나에 불과하다.



2. 공산주의의 정치체제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는 ㉠ 공산당은 계급투쟁의 전위조직이다.
㉡ 공산주의는 국가의 사멸을 믿는다. ㉢ 공산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 ㉣ 공산사회는 폐쇄되어 있다. ㉤ 공산국가는 전위적이다의 다섯 세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공산당은 계급투쟁의 전위조직이다 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레닌적 단계에서였다. 당조직론에 있어서 레닌은 노동조합 등의 대중조직도 전위조직으로서의 공산당과는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고, 또 대중정당과 전위정당과도 구별되며, 전위당에는 조직의 강고성(철의 규율)과 행동적 성격, 지도성(소수 정예주의, 직업적 혁명가)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전위정당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령부로 되고 이 전위당의 지도성을 부정하는 것은 계급투쟁에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위당의 이론과 실제도 역시 많은 모순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1) 전위당이론과 조직은 불가피하게 국민대중을 진보적·혁명적 세력과 반동적·반혁명적 세력으로 양분하여 소위 반동적·반혁명 세력과 분자를 탄압·제거·숙청하려고 기도한다.

그것은 마치 나치즘이 인종을 아리안족과 비아리안족으로 구별하고 열등 인종으로서의 유태인은 절멸되어야 한다는 발상과 다를바 없다.

공산주의자는 나치즘과 파시즘을 가장 반대하면서도 그들이 쓰는 수법은 나치즘적인 것과 하등 다름이 없는 것이다.

ii) 전위당은 철의 규율을 강요하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이나 당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 및 행동은 일절 용납되지 않는다. 민주적인 대중정당처럼 자발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입당이나 탈당은 아예 문제가 안된다. 당의 규율과 당명에 불충실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배신자로서 사정없이 출당·숙청하게 된다.

iii) 전위당은 불가피하게 폭력혁명을 추구하게 된다.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적·합법적 집권이나 대중정당과 같은 평화적·점진적 방법에 의한 집권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적·폭력적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공산당의 폭력혁명이 얼마마한 비극을 초래하였던가는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iv) 전위당은 전체적, 절대적 권력을 요구하고 행사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를 대표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당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까지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공산당은 그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 있고,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공산당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열치기 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위에 특권집단으로 군림·지배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의 공산당들이 무소불능이요, 국민대중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v) 전위당의 1당독재는 소수독재 내지 1인 독재화하기 마련이다. 프롤레타리아트독재란 하나의 명목이고 이것은 공산당 독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당독재는 소수정치요원의 독재로 되고 마침내는 일인독재로 되고 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것은 전위당의 이론적·제도적 모순에서 유래된다.

레닌의 전위당이론에 반대하여 같은 공산주의자였던 트로츠키는 『당의 기관이 당 그 자체로 되고 만다. 중앙위원회가 당의 기관으로 바뀌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독재자가 중앙위원회에 대치되고 만다』라고 비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전위당이론과 1당독재이론 및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앞에서 말한 비극적인 사태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다.

(나) 공산주의는 국가의 사멸을 믿는다.

공산주의는 국가부정의 입장에서 있다. 『공산당 선언』은 공산혁명의 제1보로서 과도적 단계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국가의 실현을 예상하였다. 과도기적 단계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이 「결합된 개개인」의 수중으로 옮겨진, 계급이 없는 공산사회라는 것이다. 즉 계급과 계급투쟁과 계급적 착취가 완전히 소멸되고 생산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의 기초위에 생산이 새로이 조직된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지배」는 없어지고 단순한 「물의 관리」와 「생산과정의 지도」만으로 되기에 국가기구는 스스로 사멸하여 『고대유물의 박물관속에 툴레와 청동

의 도끼와 나란히 보관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절대적 악」도 아니고 국가 만능론자가 말한 것 같은 「윤리적 이념의 실현체」도 아닌 것이다.

국가가 많은 폐단을 수반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개선·개혁의 여지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계급적 대립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초당적·초계급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기구 전체가 한 계급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는 국가를 계급적 지배와 계급적 착취의 도구로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제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국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혁명후의 국내전쟁, 반혁명적 세력과의 투쟁단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에 있어서의 계급적 억압, 강력적 억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점에서는 종래의 국가와 같고, 계급억제의 강력기관이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기관이며 그 강력적 억압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ii) 국내에 있어서의 반혁명세력이 일층 억압되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이 궤도에 오르자마자 국가는 특히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을 발휘한다.

다만 대외적 방위와 대내적 치안을 위한 기능은 여전히 불가결한 것으로 존속한다.

이러한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군대·경찰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그것이 자본주의 제국의 포위속에 있는 경우는 절대로 필요하다.

㉑) 그러나 군대·경찰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강화된다고 해도 그 주요기능이 종래의 것과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억압권력, 그 권력장치로서의 국가는 이미 아니며, 「과도적 국가」, 「반국가」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순에 찬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되고, 그것이 극도로 강대하여진 후에 수수께끼처럼 사멸해 버리다니 어불성설이다.

공산주의의 「국가사멸론」이나 「국가고사론」이란 비과학적 유토피아적 망상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공동생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한 국가가 없어질 수는 없다.

오늘날의 소련의 현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공산주의혁명이 일어난지도 이미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련에서 국가가 사멸할 털끝만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정치·경찰정치·공포정치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대중을 억압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사멸론도 하나의 신화적 망상임이 분명하다.

(㉒) 공산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무시한다.

공산주의는 신화적 미래사회를 예언·약속하면서 이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해서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일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이상사회의 건설이란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인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자기시대에는 이 이상사회가 실현 안될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그의 노동과 희생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에 그 고통과 희생은 고귀하고 값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이상사회를 위해 오늘의 자유와 행복은 희생하여 하고 후손들이 갖게될 것이라는 봉을 위해 모름지기 오늘의 학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서슴 없이 버려야한다는 이 주장은 생일날 잘 먹기 위해 사흘 굶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실사 우리들 세대를 희생한 후에도 반드시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는 가능성도 보장도 전혀 없다. 무정란만큼도 없다하겠다. 언제 올지, 영원히 안올지도 모르는 이상사회를 위해 과연 몇세대가 모든 것은 희생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인가? 소련의 예만 보더라도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이상사회는 가까워오고있다고 보다 오히려 더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면서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공공의 복지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공공의 복지와 대중의 생활향상을 경시 내지 무시하게끔된 데는 다음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1) 공산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되지 않는 후진지역에서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급속하고도 대대적인 산업화를 무리하게, 또 시일내에 이루어가자니 공공의 복지문제는 자연히 2차적 3차적인 것으로 우선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다.

2) 공업화에 있어서도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우선정책을 수립·추진하기 때문에 소비재생산은 억제·제한되고 만다.

이렇게하여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물자생산으로부터 자본재와 기본투자의 생산으로 전화되어지고 만다.

iii) 군수산업과 군력강화 때문에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그쪽으로 돌려져서 경제건설의 템포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소비물자의 결핍과 대중의 일제생활의 궁핍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진다.

공산주의국가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대중을 집단화시키며 강제노동을 강요한다. 소련에서의 집단농장과 중공의 인민공사, 북한의 협동조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고통과 희생이 따랐는가는 짐작만으로도 충분할 지경이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강제노동이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확립되어 왔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자는 목재나 시멘트·철근등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용의 인간자재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는 말로는 대중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개선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중시정책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미명하에 공공복지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㉔) 공산사회는 폐쇄되었다. 민주사회가 자유주의사회요 개방사회인데 반해 공산사회는 전체주의사회요 폐쇄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외부세계로부터 거의 격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다.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공산주의국가의 일반대중들은 자유세계와의 접촉과 교류를 사실상 못하고 있다.

「철의 장막」이니 「죽의 장막」이니 하는 말들이 공산사회의 고립성과 동 폐쇄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들이라 하겠다.

공산국가의 국경은 폐쇄되어 있다.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조차 제대로 없는 판국이니 외국여행이란 일반국민의 입장으로선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표나 혹은 정부의 어떤 밀령이
나 사명을 띤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은 금지되어 있다.

같은 공산권내 국가간의 내왕도 제한하는 것이니, 동구의 자유화
동조의 유입을 경계하고 북한은 동구와의 접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쓰고 있는 지경이라 자유세계와의 접촉·교류는 엄
격히 통제·금지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일반대중은 외부세계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배포허가
가 있는 외국신문·서적·또는 기타 정보자료들을 모독하거나 획득
할 수가 없다. 배포허가도 국가기관 및 고급간부에게만 가능할 것
이나 국민대중에겐 불가능한 얘기이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해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외부세계
소식의 시청도 저지 당한다.

다만 단파기계를 가진 사람, 특권지배층에 속한 사람들만이 외국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을 뿐이다.

모든 통신수단은 즉 신문, 서적, 라디오, 텔레비전, 정기간행물 등
은 언제나 엄격한 검열로 통제를 받는다.

일반대중이 알아도 상관 없는 것, 혹은 알려야 할 경우엔 괜참
으나 알려선 안될 것은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민주사회는 외부세계에 대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나
공산사회는 항상 높은 장벽을 쌓고 두터운 장막을 드리우고 있으
며,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그 폐쇄성·통제성을 발휘하
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산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었고, 그 폐쇄성을 쉽게 탈피 못하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 때문이라 하겠다.

(1) 외부세계와의 단절, 격리상태가 철권적 지배와 비인도적 강제노동등을 강행하는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동은 흔히 어둠속에서, 남이 안보는 곳에서 자행되기 일쓰린 것처럼 공산주위자들은 국경을 봉쇄해 놓고 그안에서 마음놓고 그들의 독재와 대중수탈을 감행하는 것이다. 개방사회에서라면 국내외적인 여론의 압력과 비난을 받을일도 그들은 은밀하게 해치우기가 쉽다.

(11) 밖으로 부터의 자유화의 불결이 밀려와 강제와 탄압과 대중조작술위에 이루어지고 지탱되는 위약한 공산주의 체제가 동요,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공산주의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화의 불결이요, 밖으로부터의 민주주의적 도전인데, 이러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터 공산사회를 지키는 방법은 폐쇄이외엔 될수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유에 눈뜨고 민주화와 개방체제를 요구하는 대중의 항거앞에 폐쇄와 봉쇄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 틀림 없다.

(마) ~~공산국가는 전투적이다.~~ 폐쇄적인 공산국가가 전투적. 호전적 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개방~~ ^{민중}사회는 민주적. 자유적. 평화적. 협조적인데 반해 폐쇄적인 공산사회는 전체적. 통제적. 공격적. 비타협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공산국가가 전투적인 이유는 공산주의의 교의에 그런 요소가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으며, 또 공산국가가 그와 같은 수단방법과 투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했던 것이다. 전위당이론, 계급투쟁, 폭력혁명등이 바로 가장 강렬하게 전투적 성격을 대고 있으며, 이 이론을 무기로 삼은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테러와 파괴행위와 내란과 혁명과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또 그 영토를 확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산국가들이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며, 팽창주의적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소련은 가장 제국주의와 영토팽창주의를 비난하면서도 발틱 3국을 병합하였고 핀란드를 공격했으며, 또 나치 독일과 야합하여 폴란드의 침략, 분할을 감행했다. 그뿐 아니라 같은 프롤레타리아트 형제국이라는 헝가리를 무력으로 유린했고 다시 체코를 침공하여 「프라하의 봄」을 앗아갔다. 중공역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은연하고도 공연한 위협을 일삼고 있다. 북한은 6.25 동안과 그후 잇달은 게릴라의 밀파와 프에홀로호 납치등으로 그 공격적·도전적인 본성을 백일하에 드러냈던 것이다.

이렇게 항상 공격적·침략적이면서도 공산국가는 언제나 그들이 평화애호적이며 전쟁반대의 입장에 서있노라고 선전한다. 평화선전은 공산국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평화선전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감행한 도발적 행위와 침략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며,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기도한다.

호르시초프시대에 선언된 평화공존정책과 중공의 평화 5개원칙, 그리고 북한의 갖가지 평화제안과 평화공세가 바로 자기의 호전성을 카무플라지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다. 그러나 이런 평화선전이나 평화적 제스처가 진정한 평화주구를 위한 진의의 표현이 아님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적의 힘이 우리 자신의 힘보다 우세할때, 새로운 공격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후퇴할 것인가」라고 레닌은 말한바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세블리할 때의 후퇴며, 다음 공격과 전투를 위한 휴식기간이요 준비기간인 것이다

전투적·공격적인 공산국가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평화파괴행위와 전쟁행위를 (1) 식민지해방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요, 진보적 전쟁이다 (11) 자본주의제국의 포위와 제국주의전쟁도발자들로부터 공화국과 인민과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하여 스스로를 변호·옹호하며 세계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산국가의 이러한 침략적·전투도발적 성격은 중·소간의 상호공격과 비난, 즉 소련을 「사회제국주의」 중공을 「극좌적 모험주의」라고 공산국가끼리 퍼붓는 욕설속에서도 여실히 폭로되고 있다.



3. 공산주의의 경제질서

이 공산주의의 경제문제도,

(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붕괴를 믿는다.

(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발전의 장애로 생각한다.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치적 고려로 공급을 결정한다.

(라) 사회주의의 소득분배는 불공평하다.

(마)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영원한 꿈이다.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붕괴를 믿는다.

공산주의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신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다. 멀지않아 그 발전에 막다른 길이 닥쳐서 드디어 붕괴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편에는 소수의 거대자본가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하고 다른 한편에는 노동자와 식민지 주민의 견디기 어려운 빈곤과 억압의 축적이 병행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붕괴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 객관적 조건을 무기로써 사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실행하는 주체적 조건도 성장시켰는데 이것은 계급적 자각과 통일과 단결을 이룩한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붕괴에 대한 이러한 마르크스의 일반적 이론을 20 세기의 자본주의에 적용한 것은 레닌이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자본주의는 지금 3개의 자본적 모순과 대립속에 동요하고있는데 첫째는 각국금융자본가, 제국주의 제국간의 대립, 둘째는 제국주의국가들과 식민지·종속국간의 대립, 셋째는 각국내부에서의 노자간의 대립이다. 이와 같은 모순에 의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동요는 각국내의 혁명운동과 결부되어서 세계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 이 자본주의 붕괴론 역시 전혀 맞지 않는 예언이요, 잘못된 신화적 이론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 애로와 모순을 해결·극복하면서 더욱 안정과 번영을 누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자본주의국가가 공산화된 곳은 아무데도 없다. 1차대전이나 2차대전 후에 나타난 공산국가는 전근대적·반봉건적 후진지역에서 출현한 것이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서는 공산주의도 오히려 퇴조·쇠퇴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붕괴론이 틀려버린 낡은 이론으로 되고만대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1)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한국전쟁, 월남전쟁등의 발발로 자본주의의 경기후퇴·불황·공황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전쟁불경기는 자본주의 불황을 해결할뿐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은 제국주의 제국을 상호약화시키고 민족운동은 제국주의 제국의 힘의 원천지를 반대로 혁명의 근거지로 변화시켰다』고 공산주의는 말하나 반대로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에게

활력과 경기회복을 가져다 줬고 또 민족운동은 공산혁명에게 계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ii) 자본주의체제가 도전을 받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자본주의붕괴」=「사회주의화」의 공식이 절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후진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동요되고 위기를 맞는 경우엔 공산화에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군부집권등에 의해 공산화저지 및 자본주의체제 지속·유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7
마르크스도 레닌도 이 점을 파악 못하고 말았다. 1

(iii) 가장 결정적·효과적인 이유로서 작용한 것은 자본주의의 자기수정적 노력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생각하고 증오한 노동자를 착취하여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기만 하는 악의 대신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결코 아니다. 뉴딜정책이나 페어딜정책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자체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혁신, 관리·경영합리화, 공장법, 노조법, 노동자재해보상법, 양로연금, 최저임금제, 보건·실업보험법, 경영 협의회 등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등의 적극적인 채택·실시로 「자본주의붕괴론」을 허위에 찬 공념불로 만들어 버렸다.

(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발전의 장애로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모든 부정·부패·타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유재산은 도적질한 것이요 악이라고 비난한다. 사유재산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생활수단의 개인소유를 철폐하게 되면 인류와 사회는 악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사회화해 버리고 있다.

소련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에 토지와 공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폐지되었으며, 집단화가 강행되었다. 중공에서도 인민공사제를 추진하면서 사유재산제가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북한도 그의 독재권력이 취약하고 경제적 조건이 미비하기까지는 중소기업의 사영과 농업의 개인경작권을 인정하였으나 독재권력의 확립과 더불어 국유화와 집단화가 강제되었다. 광공업과 상업은 국유화하고 농업은 집단화하였으나 이 농업의 집단화는 강제와 위협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회주의적 농업협동조합 조직이 이루어졌고, 사영중소상공업도 국영이나 협동조합사업에 흡수되었고, 개인상공업도 기만과 배신, 압력 강제수단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은 인류의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고 현대의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는 18 ~ 9세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는 ^{자본}계약자유의 원칙등과 함께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초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유재의 일부모순과 결함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반성과 제약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산의 자유로운 사적 지배를 사회적·공공적 견지에서 제한하기에 이르렀으며, 재산의 불가침도 법령의 한계내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재산권을 공공복지를 위해 행사하는 의무가 지워졌고 재산권의 남용도 견제되기에 이르고 있다. 모든 사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며, 사유재산제 역시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경우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수정·시정해가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에 따르는 긍정적인 면만 클로즈업시켜 사유재산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만 것이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는 이유는 국유화와 집단화로 부르조아지의 수중으로부터 모든 생산수단을 탈취함으로써 부르조아지를 무력케 하거나 무장해제시키고,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를 물질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전술적 의도때문이다.

이렇게하여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기하고 이를 국유화하긴 했으나 여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기로 불가피하게 생산의욕과 창의력·창발력이 둔화 저하되고 말았다. 소련의 집단농장농민들의 저항이나 수많은 태업등이 이의 단적인 표현이라하겠다.

(ii) 이러하기에 공산주의는 대중들의 사유소유욕에 대한 양보와 회유를 위해 개인의 주택과 부속농지및 소농구들은 개인소유로 하고 있다.

(iii) 저하된 생산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물질적 정신적 자극을 주고있다. 즉 공산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보수·임금에 차등을 두고 보너스제를 두었으며, 수많은 훈장, 명예칭호를 부여하여 개인의 자존심·공명심과 물질적인 욕망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iii) 다음으로는 강제노동과 가혹한 노동동원이 이루어진다. 소련에서의 「스타하노프운동」, 중공의 「대약진운동」,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산수단의 사유제 대신 국유화가 이루어진 공산국가의 노동자들은 노동쟁의권도 파업권도 없이 국가라는 사용주에 의해 혹사당하고 착취당할 수 밖에 없다.

(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정치적 고려로 공급을 결정한다. 자본주의경제는 시장경제며 그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기초한 경제이다. 생산자·소비자·상업자 등 각각의 개별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이 상호 작용·교섭하는 관계를 시장이라고한다. 이시장의 개념은 수요·공급에 따르고 또 발생하고 소멸하게된다.

이러한 무수한 시장의 개념을 종합한것이 유통경제로서 파악된 경우 국민경제이고 세계경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경제는 이러한 수요·공급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산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계획경제의 특징은 중앙에서 생산량·공급량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하며, 동시에 투자의 배분을 지정하며 가격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투자와 같은 중요한 경제문제는 이윤율이라든가 이자율에 지배되지 않고 또 국민의 저축과 은행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 모여드는 수요와 공급과의 상대관계에 의존하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로지 중앙정권이 소요의 자금과 물자를 장악하여 계획적으로 입안하게 된다. 이것 외에도 자원의 중점적 개발, 물자의 동원, 노동력의 보충과 전용에 있어서도 영리추구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만큼 중앙집권적 통제시책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및 하부조직의 창의와 적극성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집권적 권력기구는 오직 강제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관리기관은 관료주의적 조직으로 되고만다.

또 이미 말한것처럼 공급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공급에는 여러 종류의 인력도 포함되며, 어떤 종류의 인력은 훈련하는데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거나 어떤산업에 더 시급히 필요하게된다. 이것이 임금이나 봉급에 차이를 생기게하는 근본이유로 작용된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경제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공급이나 생산을 결정하는 정책은 기업활동의 부진·정체를 가져왔다. 여기서 제기된 것이 리베르만 이론이다. 그의 「계획·이윤 및 수당금」이란 논문을 보면 「국가기업에 있어서 계획통제라는 외부관여로 인한 기업상의 손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업내부로부터 이윤활동을 목적으로하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리베르만의 「이윤도입설」이 나올만큼 공산국가의 경제는 생산과 수요간의 조고된 괴리와 심체에 빠져버렸다. 이 결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생산품이 산적하고 축적과 소비간의 비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생산과 공급이 실질적인 시장요구에 부응치 못하는 결과를 더욱더 나타내게 되었다. 일반적인 결핍속에서의 판매도 안되고 원하지도 않는 상품의 과도생산은 낡은 방식의 비효율적인 현상의 표현이다. 이와같은 사실로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즉,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생산과 공급제도는 절대적인 투자위주경제에서 효과적인 소비자간의 요구가 강력해지기 시작한 시대로의 변천 속에 포함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라) 사회주의의 소득분배는 불공평하다.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 교수는 그의 「정치학강령」에서 「경제적 평등이 없는 곳에는 정치적 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공산주의사회에는 격심한 소득의 차이,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평등이 있을 까닭은 더욱 없다.

「무계급사회」를 주장하는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에는 이제 두개의 계급이 엄존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대중을 지배하는 소수의 당 및 국가관료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굴레 밑에서 억압·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의 일반대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사실 가운데서의 하나만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소련에서의 평균월급액이다. 이 숫자는 1960년 「노동월보」에 실린 것이다. (당시의 교환율은 1루블 = 1달러 10센트였다)

직	종	월급 (단위는 루블)
과 학 자		800~1,500
교 수		500~1,000
강 사		300~ 500
공 장 관 리 인		100~ 300
기 사		100~ 200
의 사		100~ 200
고 등 학 교 교 사		85~ 150
국 민 학 교 교 사		60~ 100
숙련공 (기계공·선반공)		100~ 250
반 숙 련 공		60~ 90
불숙련공 (도리소재부, 수위, 여급)		40~60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월급액의 차이는 실로 놀랄만하다. 같은 육체노동의 경우에도 숙련공은 불숙련공의 2.4 배 내지 4 배나 더 받는다. 그리고 불숙련공의 월급은 과학자의 2 백분의 1

내지 250분의1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중공·동구·북한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중앙기관의 상(장관)은 230~270원인데 도인민위원회 지도원은 40~50원이고, 같은 교직원이면서도 대학교수는 150~190원인데 인민학교(국민학교) 5급 교원은 68원이다. 또 같은 설계 부문기술자도 1급이 120~150원인데 비해 5급은 45~50원의 현저한 노임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사회주의 관료제도는 그들의 봉급이 노동자의 것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이런 주장이 실현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에 밝힌 평균월급여표에는 농민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들은 불속련공노동자보다 수입이 나쁜 편이지 좋은편은 아니다. 또 여기엔 고관들이 빠져있으나 이들의 수입이 고액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돈으로 공장이나 토지나 광산등을 살 수 없으나 자가용자동차와 텔레비전과 사치스런 가구와 고급의 복이나 개인주택을 살 수 있고 심지어 교외별장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극장이나 오락장에선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며, 비싼 포틀 산 사람은 특등석이나 1등석에서 관람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사회주의의 불공평한 소득분배는 「무계급사회」라는 공산주의사회에 「가진 계급」과 「못가진 계급」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마)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영원한 꿈이다.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라는 원칙이 작용·적용되는 사

회를 공산주의사회라고 한다.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사회는 그 자신의 기초위에서 발전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사회이기에 「개개의 생산자는 그가 사회에 준 것만큼의 것을 (일정한 공제 후에) 정확하게 도로 찾는다」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는 부르조아적인 구속을 받는 「평등의 권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의 제 1 단계며, 사회주의사회라고 불리운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이것보다 더욱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하에 노예적으로 예속하고 있는 상태가 없어지고, 따라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노동이 다만 생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생활의 제 1의 욕구로된 후,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도 증대하여 협동조합적 부의 모든 분권이 넘쳐나오게 된 후에 - 그때 비로소 좁은 부르조아적 권리의 지평선은 완전히 넘게 되고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어로 넘어간다는 이 말 역시 하나의 미래 사회를 그리는 신화요 실현불가능한 꿈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는 이 말을 자주 쓰고 있으니 우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①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실들에서 본바와 같이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국가는 불평등하고 통제와 강압이 따르는 하나의 병영국가로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교의상의 사회주의사회에서 멀어져만가고 있는데도 소련은 스스로 이미 1935~36년경에 기본적

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했고 사회주의 체제를 창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인 이행기」에 들어섰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이 말이 허구에 가득찬 한낱 선전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3) (i)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고사하고 그 낮은 단계라는 사회주의 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각인은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노력에 따라」라는 사회주의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지도 않는다.

각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흡수되어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조차 없으니 각인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될 까닭이 없다. 또 이렇게하여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것만큼 정당하게 분배받느냐 하던 천만 아니다. 봉급등급의 격차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3) (ii) 「각인은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필요에 따라」란 말은 미사리구로서는 좋으나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준다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증대시키더라도 될 일이 아니다. 하물며 계획경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활동의 불진·정체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현실에선 더구나 말도 안된다.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 선전과 사실간에는 너무나 큰 거리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 공산주의에로의 이행론에서도 여실히 볼 수가 있다.



4. 공산주의와 사회질서

이 항목도 (가) 공산주의와 자유는 양립못한다. (나) 공산주의 체제는 상호불신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다) 공산국가의 대중은 공산귀족의 노예이다. (라)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성의 본질을 무시한다. (마) 공산주의의 획일속에 진보는 없다는 다섯 세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산주의와 자유는 양립못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서구민주주의와 근대시민적 자유를 낳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부르조아지배 위한 자유로 규정하고 그와같은 체제하에선 근로대상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대중적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만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이고 이 제도하에서만 참다운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헌법에는 노동자·농민의 주권을 규정하고 여러가지 자유와 권리를 명분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식이요, 선전이며 공산국가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사회에는 언론·출판·결사·집회·신앙등의 자유가 없다.

공산사회에 있어서의 자유란 다만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에 불

과한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사회는 그 전체가 하나의 강제노동수용소요 병영이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보자. 공산국가에도 물론 신문과 잡지와 통신이 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매스·매디어는 당과 내각의 기관지요 어용기관이다. 공산국가의 언론기관은 철저한 통제와 검열하에 있으며, 당이나 정부의 업적이나 찬양하고 피알하는 데에 그 기능을 다할 뿐이다. 비판이나 반대란 생각조차 못한다. 언론의 자유란 찬성하는 자유와 함께 반대하는 자유가 있어야 하나 공산국가에서는 이 반대의 소리는 철저히 봉쇄·탄압되고 만다. 야당지가 없다는 사실이 곧 언론자유부재의 산 증거이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 출판의 자유가 있을 까닭이 없다. 공산세계중에선 그래도 조금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는 소련에서조차 파스텔나코나 솔제니친의 저서가 국외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과 지하신문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이 출판의 자유가 없음을 반증해 준다. 모든 출판사와 서점·도서실 등은 당에 의해 지배되거나 당에 책임을 지며, 또 모든 작가와 예술가와 과학자는 당에 의해 수락될 수 있는 사상이나 당노선에 입각한 작품활동·창작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정치적·정신적 봉토에선 참된 예술활동도 또 출판의 자유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공산사회에는 결사의 자유도 없다. 일당독재체제하에 복수 정당적 자유가 있을 까닭이 없다. 있다는 것은 공산당의 불러리 정당 이거나 위성사회단체들 뿐이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이미 이해관계가 상반된 적대적 계급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이외의 정당이 존재할 기반도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공산당 하나만이 국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는 궤변으로 일당독재를 변호하고, 결사의 자유가 없는 사실을 억지로 합리화시키려 한다.

네째 공산당을 지지하는 관제어용집회 이외에는 집회의 자유가 없으며 신교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심지어 결혼의 자유도 없다. 있다는 것은 오로지 공산당에 복종하고 박수나 치고 독재자의 만세를 부를 자유 밖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민대중의 자유를 억압·유린·탄압함으로써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이다.

(나) 공산주의 체제는 상호불신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폐쇄사회요, 이 폐쇄사회는 비밀경찰과 테러와 감시와 밀고·상호불신위에서 유지·지탱된다.

공산주의 체제는 「관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계와 고발」이 시민의 의무요 미덕으로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오웰이 쓴 「1984년」이란 정치소설이 공산사회의 불신·의심·경계·감시·배신·고발의 사회상을 잘 폭로·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사학자이며 고케네디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아더·슐레진저 교수의 소련기행문중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나는 세계의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았지만은 결코 소련에서처럼

임시변통적으로 하는 모욕적이며 지속적인 거짓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큰문제를 -가령 소련작가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든가,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든가 하는 따위의 -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듣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고등정책에 속하는 거짓말들 이지만, 이와 비슷한 거짓말들을 국가정책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간의 관계에 속하는 사소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듣게 된다」.

불신사회, 고발과 밀고가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기호신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진심을 쉽게 드러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위장을 하든지 거짓말로 꾸며대든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낯선 외국인에겐 더욱더하다 하겠다.

공산사회가 이처럼 불신과 경계위에 지탱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 이유 몇가지를 들어보면

(1) 공산주의체제가 독재체제요, 강권적·폐쇄적체제라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런 독재체제는 그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국민대중을 억압·통제·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상호감시·상호고발·상호불신케하는 대중조작기술을 쓴다. 즉 집권자가 그들의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불신봉조를 만들어 내어 국민대중 상호간의 불신·대립·분열·고립을 조장하여 지배하게 된다.

(2) 이러한 대중조작술에 의해 일반대중은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게 된다.

언제 강제수용소로 갈지 언제 인민재판을 받을지 언제 출당 당하거나 숙청될지 예측할 수 조차 없다. 일반대중은 물론이려니와 정부나 당의 고위간부까지도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시민처럼 공공연히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보고 남이 나를 해치거나 앓을까 하고 경계하며 항상 남을 불신하고 방어적이 된다.

(iii) 이처럼 신중하고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부터 적극적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면 남을 고발하고 남을 배신하면서 자기의 방성과 충성심을 강조·과시하게 된다. 태업이나 반혁명음모를 탐지하여 밀고함으로써 승진과 출세의 기회를 이용한다.

상호 불신과 경계와 적대위에 지탱되는 공산주의체제는 사랑과 신뢰와 인정과 관용이 결여된 냉혹하고 비정하고 무자비한 체제이다.

(다) 공산국가의 대중은 공산귀족의 노예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도 착취도 소외도 없는 살기좋은 사회, 자유롭고 계급없는 노동자의 지상낙원이 곧 공산주의사회라고 묘사·선전하였다. 그리하여 이 무계급사회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투쟁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인 부르조아지를 타도하고 탈취한 권력을 장악하여 프롤레타리아트독제를 수행하면 인류의 전사는 끝나고 이상적인 새로운 사회, 프롤레타리아트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약속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소련을 비롯한 어느 공산국가를 봐

도 계급이 없어지고 국가가 사멸되고 또 노동자의 낙원이 실현되어지는 징후도 가능성도 찾아 볼 길이 없다. 변화가 있다면 다만 지배계급에 변동이 생겼을 뿐이다. [구체제의 지배계급은 타도·숙청되어 사라졌으나, 그 자리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들어 왔고 말았다.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광신적이며 더욱 능숙하고 더욱 냉철·잔인한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생사여탈권을 장악한채 군림·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다만 주권자며 주인인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일꾼이요, 주인은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이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임은 일찍기 트로츠키가 실패한 바 있다. 그는 「패반 당한 혁명」이라는 소련혁명을 고발하는 책속에서 소련에는 「제급외적 계급」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즉 적색황제인 스탈린이 소련안에 「노동귀족」이라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지배계급을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노동귀족이 당름아닌 특권적 「공산귀족」이다.

트로츠키의 이 「제급외적 계급」의 실제성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이가 바로 소련문제전문가인 「데이빗·달린」이다. 그는 「적나라한 소련」이란 책에서 소련에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고

숫자를 통해 묘사하였다. 그것은 ① 국가 관료군(노동귀족계급) 14%, ② 노동자계급 22%, ③ 농민계급 53%, ④ 강제수용소노동계급 11%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세비키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의 이 계급구조표를 보면 ① 귀족계급이 3%, ② 중산계급이 4%, ③ 지식계급이 2%, ④ 노동자가 18%, ⑤ 농민이 73%였고 강제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관료군의 성분구성을 보면 ① 광원자격을 갖고 있는 고위층 공무원, ② 공장·탄광·광산등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고급종업원, ③ 콜호즈(集團農場)와 소호즈(國營農場)등 농업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고급종업원, ④ 중소상업기관 및 소비조합 협동조합 등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고급종사원을 총망라한 것이 국가관료군이다. 이들이 공산사회의 노동귀족계급에 속하며 그 소득총액은 기타의 계급의 소득총액에 비해서 월등하게 다액임은 사실이다.

이 노동귀족이란 특권계급은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음은 물론 나머지 계급을 착취·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만이 아닌 모든 공산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다. 노동자의 낙원이라는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와 노조는 산업과 함께 국유화되었고 어용기관으로 전락하였으며, 고용주인 국가와 공산귀족에 의해 노예처럼 착취당하며 사역당하고 있다.

(라) ~~공산주의체제는 인간성의 본질을 무시한다~~ 독일의 유물론자는 헤겔과 파아였던 포이엘바하는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파악 해석한 나머지 「인간의 본질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물론 인간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 나 그러나 인간은 다만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인격과 이상과 자유의지를 갖고 철학적 사유를 하고 신을 경외하며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이며 어디까지나 목적 그 자체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체제는 이런 인간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과 방편으로 인식·파악하고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작위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과 수단에 불과한, 몇몇 인간의 두뇌의 산물인 공산주의를 위해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봉사하고 희생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사상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희생되었고 비극을 치루었는지 모른다. 인간을 위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사상때문에, 그 사상의 실현때문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래의 전도임에 틀림없다.

일회생적인 인간을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해 강제동원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대중을 휘몰아가는 것은 인간을 실험용 물모트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민주주의가 인간존중의 사상이요 제도라면 공산주의는 인간천시

인간경시의 사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는 낭만과 정서가 있으며 동정심과 박애심, 휴머니즘이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과 입장을 달리 하면 이런것을 프티, 부르주아(小市民)적センチ멘탈리즘이라고 사정없이 비난하고 만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애착심, 자기물건에 대한 소유욕, 부당한 간섭과 구속을 실어하는 자유에의 욕구, 이런것들을 공산주의자는 개인주의적, 반동적, 반혁명적 사고요 작품이라고 낙인찍어 버린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체제는 사랑과 관용과 휴머니즘 대신에 계급의 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과 비관용과 철두철미한 계급의식을 강요. 주입시키려 든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애정 대신에 당과 전체로서의 사회와 계급에 대하여 헌신,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속박없는 자유가 아니라 엄격한 통제와 규율과 조직속에 얽어넣으며, 모든 개인적 소유, 사유재산은 몰수하여 국유화 시켜버리고 만다.

공산주의체제는 환상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구실밑에 모든 대중에게 순교자적 희생과 노예의 굴종을 동시에 강요하여 파스칼이 말한 「중간자」로서의 인간을 보다 높은 신의 차원으로가 아니라 더욱 낮은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마) 공산주의의 획일속에 진보는 없다.

공산주의는 획일적 사상이요, 공산주의체제는 전체적, 전체주의적 체제이며 공산주의사회는 폐쇄적, 봉쇄적 사회이다.

획일성속에서는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이 싹트지 못한채 사회는 타성에 젖고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진보·발전을 못하게 되고 만다. 르네상스 이전의 서구중세사회를 가리켜 흔히 암흑사회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스콜라철학, 신학의 획일성속에 기타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학술이론이 억압, 위축, 쇠잔해 버렸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사회는 유니폼의 사회요 병영사회인데 그것은 체제와 제도와 생활면에서만이 아니라 사고의 면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독재자의 생각과 지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일상불란한 규율과 행동은 군대사회나 죄수사회엔 필요한 것일지 모르나 민주시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의 남북적십자회담의 결과로 밝혀진 것이지만 북한사회의 빈틈없는 획일성, 숨막히게하는 규격성을 우리는 보았다. 모든 사람은 한결 같이 「유일사상」을 외우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제스처를 쓰며 연설의 억양과 박수치는 방법조차 비슷하다. 털끝만한 상호간의 차이점도 변화도 다양성도 없이 판에 박은듯하다.

공산주의체제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고 만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산주의의 교의해석의 태도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다의적 해석과 이의제기를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교의해석의 태도는 그 실천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 일당독재, 일인독재체제로 되어 ³반대파의 존립이나 주장을 용허하지 않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획일성이 풍미하게 된다.

공산주의의 획일성은 다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된다.

(1) 공산주의는 발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도식적 교조주의적으로 되어 발전하는 상황에 신속성있게 적응되지 못한다. (11) 권력구조와 권력장치는 권위주의적, 강권주의적으로 되고 문호는 폐쇄되어 화석화하고 만다. (111) 모든 문학, 예술활동은 창의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독재자와 당을 선전하는데 시종하는 메넬리즘에 빠져버리고 만가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는 획일성속에서 진보, 발전을 못하고 다만 독재적 폭력적 수법으로 국민대중을 강제적으로 지배해 가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 반문화적, 반역사적 본질을 정확히 파악, 폭로하고, 우리의 자유사회와 민주주의체제의 우위성과 가치를 재인식하여 이의 보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